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끝'

전주시, 오늘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시작으로 단계별 예방접종

김승수 전주시장이 2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26일 전주시가 18세 이상 시민 54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계획 수립부터 접종대상자 관리, 접종시설 점검, 백신 운반, 예방접종 모의훈련, 사후 관리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먼저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산체육관 등 2곳의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 수립 이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의료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왔다. 지난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완산·덕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병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 기관장 회의'가 열린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에는 현재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전라북도간호사회 ▲간호조무사협회전북도회 ▲전주시의사회 ▲전북대학교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전주시설관리공단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 ▲접종센터 치안·교통관리 및 백신 수송 경호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백신접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동시에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의훈련과 반복 점검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2일에는 전주지역 거점 예방접종센터인 화산체육관에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과 전주시보건소와 경찰·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됐다. 화산체육관은 정부가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선정한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우선선정 대상지로,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입·출구 분리여부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구비여부 등 예방접종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동시간대 방문할 수 있는 예방접종 장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의료·수송체계를 점검했다. 또, 초저온냉동상태로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이자·모더나 백신(mRNA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전력공급 현황과 정전 등에 대비한 임시전력 공급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23일에는 평화보건지소에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백신접종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백신접종 모의훈련이 이뤄졌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으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주시 예방접종 추진단에서 철저히 준비한 만큼 시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는 시민공론화가 지난해 2월 사전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1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전주시민의 의견을 담아낸 권고문을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 의견 시에 전달

시민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이후 한 달간 논의 끝에 권고문 확정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는 시민공론화가 지난해 2월 사전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1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전주시민의 의견을 담아낸 권고문을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전주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권고문을 최종 확정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권고문은 타 공론화와 다르게 찬반이 아닌 활용 방향을 정하는 사안임에 따라 크게 제안배경, 권고사항, 추가권고사항, 붙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전주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전주시장께서는 최선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전주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민간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상상력·용기·연대 힘으로 사람의 도시 구현'

전주시, 지속발전 미래도시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법상 특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첫마중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곳곳에 조성해 책 중심 도시로 나아가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는 25일 기획조정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상상력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사람의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지속발전 미래도시 성장동력 확보 ▲아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도시 실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 중심 도시 구현 ▲시민소통 공감행정 추진 등이다.

먼저 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신설된 전주형 뉴딜 추진단을 필두로 ▲디지털뉴딜 구축 ▲그린뉴딜 전환 ▲상생연대뉴딜 등 3대 방향의 전주형 뉴딜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방자치법상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활동에 나서는 한편 일자리·도시재생·관광 등 성장·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는 아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족시키고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야호 아이숲 놀이터 ▲야호 생태놀이터 ▲야호 유아숲체험원 등을 늘리고, 3월부터는 덕진공원 내 '맘껏하우스'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 중심 도시를 구현하는 데 공을 들인다. ▲아중호수도서관 ▲첫마중도서관 ▲학산 숲 속 시집 도서관 ▲여행자도서관 ▲서학마을 예술전문도서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등 특색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공감행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다움의 저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주다운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학기 대비 시내버스 20개 노선에 36대 증차

전주시가 다음 달 신학기 시작에 대비해 감축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증차한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대기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시내버스 주요 20개 노선에 36대를 증차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총 운행대수 408대 중 약 21%인 86대(1일 795회)를 감축했으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체의 약 12.2%인 50대(1일 465회) 수준으로 재조정키로 한 것이다.

버스가 추가로 투입되는 노선은 ▲3-1 ▲3-2 ▲7-1 ▲61 ▲72 ▲75 ▲88 ▲89 ▲102 ▲103 ▲104 ▲108 ▲165 ▲309 ▲380 ▲381 ▲383 ▲385 ▲554 ▲559번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주시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